



01

라이프 스타일

탕진잼 '소소한 탕진에서 느끼는 재미'라는 뜻으로 경제 불황과 취업난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소비행위를 말한다.

관태기 '관계+권태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회의를 느껴 혼자 다니는 것을 즐기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갬이어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봉사, 여행, 진로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체험하며 흥미와 적성을 찾고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취계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뜻하는 덴마크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행복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이다. 좋은 직장 조건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02

언어, 취향

최애 '최고 애정하는'이라는 뜻으로 아이템, 가수 등 제일 좋아하는 것을 꼽을 때 말한다.

취존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 상호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아민정음 커뮤니티 야구갤러리와 훈민정음의 합성어로 땡땡이(명명이), 땡작(명작), 커엽(귀엽), 땡챙(명칭) 등 보이는대로 다른 형태의 한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바사 '사람 by 사람'이라는 뜻으로 개개인마다 다른 상황을 강조할 때 쓰인다. 흔히 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유의어.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라는 뜻으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라는 뜻.

세젤예 '세상에서 제일 예쁜'이라는 뜻. 주로 아이돌 가수를 찬양할 때 쓰는 말이다.

팩폭 팩트폭력, 팩트폭행, 팩트폭격의 줄임말. 사실을 나열해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언어행태다.



03

취업

인구론 인문계의 90%는 논다는 뜻으로 취업이 어려운 인문계 졸업생의 현실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금턴 금처럼 소중한 인턴이라는 의미. 정규직 전환이 약속돼 있거나 전환율이 높은 인턴 자리를 말한다.

흙턴 인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양질의 인턴자리를 뜻하는 '금턴'과 반대되는 말로 허드렛일이나 단순 노동만 반복하는 것을 뜻한다.

자소설 자신을 조금이나마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뜻한다.

이태백 '이심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으로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인해 증가하는 청년 백수를 일컫는다.

NG족 No+Graduation의 합성어로 취업을 위해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휴학해 학생 신분을 연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모인턴스 정규직 채용에 거듭 실패하고 인턴생활만 반복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이르는 말이다.



04

소비

멍청비용 부주의한 탓에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는 경우. 한마디로 멍청하지 않았다면 안 나갔을 돈을 뜻한다.

찾깎비용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찾깎에 쓰는 돈. 일상의 스트레스나 우울함 등을 소비를 통해 해소하는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다.

일코노미 '인'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1인 가구로 인해 나타난 경제 현상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페이크슈머 가짜를 의미하는 'fake'와 소비자란 뜻하는 'consumer'를 결합해 만든 단어로 최소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기 위한 소비. 가상 연애 시뮬레이션이 나 집안 캠핑 등이 있다.



05

유형

혼디족 혼자 디저트를 즐기는 사람들라는 뜻으로 혼술, 혼밥에 이어 자기 만족을 위해 먹거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20~30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스몸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로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다.

디지털노마드 일과 주거에 있어 유목민(normad)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들을 뜻한다.

방구석 여포 온라인 세계에서 거침없는 연행을 하는 키보드워리어를 가리키는 말로 삼국지의 여포처럼 방 안에서만 웅망한 사람을 일컫는다.

카공족 카페서 공부하는 사람들. 프리랜서와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카페가 친목장소가 아닌 공부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포미(For Me)족 개인별로 가치를 두는 제품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왕홍 '인터넷(網絡)에서 인기 있는 사람(紅人)'을 뜻하는 신조어 '왕뤄홍런'을 줄인 말 (=influencer)



06

플레이스

연트럴파크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뉴욕 센트럴 파크에 빗대 부르는 이름. 잔디밭과 산책로가 있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꼽히고 있다.

사로수길 서울대학교 로고와 비슷한 글자인 '샤'에 가로수길을 더한 합성어로 서울대입구역의 관악로 14길을 지칭. 젊은 가게주인들의 개성 가득한 맛집들이 많아 인기있는 골목이다.

망리단길 망원동+경리단길의 합성어로 이태원의 경리단길을 잇는 핫한 동네로 꼽히는 장소다.